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지급제 도입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위해 공약 내걸어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천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전북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공무원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지급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동료 직원이 대신 배우는 사례가 찾아 행정직 공무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



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학교 행정실은 대부분 2~3명의 소수 인력으로 운영돼 한 명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 맡아야 하는 구조다. 그동안 이 같은 업무 대행을 위한 별도의 보상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천 예비후보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지방공무원에게 별도

의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안에 따르면 월 10시간 이상 업무를 대행한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 사례는 있지만 교육청 단위에서 시행될 경우 전국 최초가 될 전망이다.

천 예비후보는 "학교 행정실은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동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며 "그 노력과 부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시간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고 행정직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의 연간 소요 예산은 약 1억8,900만원 규모로, 교육청 전체 예산을 고려할 때 무리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천 예비후보는 "아이 키우는 공직자가 눈치 보지 않는 교육청 동료의 수고에 존중받는 공직문화를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일 본청 청조사내 시청각실에서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 2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발달지연 유아 맞춤형 지원

전북교육청, '드림아이' 본격 추진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213곳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달이 더딘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드림아이(Dream I)'를 본격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일 언어와 신체, 사회정서 발달이 지연된 유아를 조기에 선별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드림아이' 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올해 10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학부모 만족도 92%를 기록한 '특별! 발해드림 언어발달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기존 언어 발달 중심 지원에서 신체와 사회정서 영역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도내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210여 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발달 검사 결과 지연이 우려되는 유아에게 1인당 최대 25만원의 검사비를 실시 지원할 계획이다.

검사 이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청의 마음상담 센터 유아 지원 사업과 연계해 개별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사업은 영유아 발달 지연 문제에 조기 대응하고 유보통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본청 청조사내 시청각실에서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 2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열고 세부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드림아이 사업 운영 방향을 비롯해 언어·신체·정서 발달 지원 프로그램 활용 방안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등이 안내됐다.

교육청은 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장지원자료를 보급과 컨설팅단 운영 등 후속 지원 체계를 마련해 유치원과 어린이집별 맞춤형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유아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만큼 조기 선별과 적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모든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달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 감사교육원 위탁 교육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감사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일 국립전주박물관 세미나실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감사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감사교육원 위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감사담당 공무원의 실무 능력과 감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감사교육원에 위탁해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실제 감사 수행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쟁점과 실무 경험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감사 저항 극복 방법, 직무갈등론 일반, 계약 및 지출 감사사례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감사원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은 수석감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 쟁점과 대응 노하우를 사례 중심으로 전달하면서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감사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사후 지적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감사행정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이번 교육이 감사담당 공무원의 실무 감각과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감사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청렴한 전북교육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학교가 생성형 AI와 실감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교육 혁신 거점인 'AI스페이스(AI SPACE)'를 확장 구축하며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한층 강화했다. 사진은 양오봉 총장이 AI스페이스 내부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이다.

최첨단 퍼지컬 AI 인프라 고도화

전북대, 'AI 스페이스' 확장... 수업공간 증설 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생성형 AI와 실감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교육 혁신 거점인 'AI스페이스(AI SPACE)'를 확장 구축하며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한층 강화했다.

이번 확장 구축은 지난해 4월 AI스페이스 개소 이후 학생들의 높은 참여와 교육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대 교육혁신본부는 공간 재배치를 통해 교육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용 좌석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최신 에듀테크 기술인 수업자동 녹화시스템을 도입해 고품질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공유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학습 접근성과 교육 효과를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확장의 핵심은 '퍼지컬 AI(Physical AI)' 기반 체험 환경의 도입이다. 기존 생성형 AI 중심 체험을 넘어 실제 물리적 움직임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실습 중심 교육이 가능해졌다.

주요 구축 장비로는 △AI 바둑로봇 △AI 드로잉로봇 △사육사육 로봇 △AI 기반 홀로그램 박스 △트레드밀형 시뮬레이터 등이 포함되며, 학생들은 다양한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심재우 전북대 교육혁신본부장은 "AI스페이스는 생성형 AI와 실감형 콘텐츠를 통합한 개방형 학습 플랫폼"이라며 "이번 확장을 계기로 학생들이

AI 기술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실감형 AI 인재 양성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AI는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이라며 "AI스페이스 확장은 전북대학교가 추진 중인 'On AI 시대'와 퍼지컬 AI '밸리' 구축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교육 혁신 모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학교 진수당 253호에 위치한 AI스페이스는 현재 구성원을 대상으로 상시 운영되며, 향후 첨단 장비 활용을 비교과 프로그램과 체험형 교육 과정에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학교 정보업무 현장 컨설팅 운영

전주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정보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현장 지원에 나섰다.

전주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2026년 학교 정보업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5월 28일까지 총 26개 교원의 신규 정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학년 초 업무 적응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 학교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컨설팅은 신규 담당자의 업무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업무를 중심으로 정보업무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현장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 컨설팅에 참여한 한 학교 담당자는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 큰 도움이 됐다"며 "생소했던 정보업무 부담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학교 현장의 정보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업무 운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유치원·어린이집 학습공동체 운영

전북교육청, 교원 전문성 강화... 20개팀 모집 17일까지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아 교육과 보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습공동체 운영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학습공동체 20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습공동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수업 나눔과 연구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사들은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전략을 탐색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사 간 멘토와 멘티 관계를 형성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보육 문화를 만드는 데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주요 활동 분야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비롯해 자연사랑·환경사랑 교육, 인성·인권교육, 유치원과 어린이집 연계 교육, 유아 책 놀이, 자유 주제 등으로 구성된다.

전북교육청은 학습공동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설명회와 담당자 연수,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결과물 나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5명 이상이 한 팀을 구성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주관 어린이집을 통해 문서로 신청하면 된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학습공동체 운영은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아교육과 보육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사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대, 결핵학회 전북지부와 감염병 예방 등 업무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지난 9일 본관에서 대한결핵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지부회장 신효관)와 구성원 감염병 예방 및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주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건강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주대는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보건전문기관인 대한결핵학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협력 기반을 갖추게 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검사·예방·진료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 협력 △복합서비스 연계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 △양 기관 공동사업에 대한 홍보 협력 등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53명 선발

전북교육청, 13~17일 원서접수 필기 6월 20일·면접 8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일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서는 총 5개 직렬 5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직렬별 선발 인원은 교육행정 40명(일반 38명, 장애 3명, 저소득 1명), 전산 1명, 공업 4명(일반 2명, 일반전기 2명), 속기 1명, 시

설관리 7명(일반 6명, 보훈부 추천 1명)이다.

응시원서는 13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취소는 20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시험 일정은 필기시험이 6월 20일, 면접시험이 8월 14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9월 1일 발표된다.

전북교육청은 응시자들이 원서접수 기간과 시험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 시험·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2027년 특수학급 신·증설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반학교 특수학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7년 특수학급 신·증설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특수학급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교육전문직원, 교사 등 600명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는 학급으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춘 개별화 교육을 통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교 선택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확대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오상근 기자



이에 전북교육청은 2024년 61개, 2025년 50개에 이어 올해도 54개의 특수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해 공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관계자와 기존에 특수학급을 신·증설한 학교의 교장이 강사로 참여해 실제 운영 사례와 추진 과정 등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수학급 설치 과정의 현장 경험을 전달해 교직원들의 공감대를 넓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2027년에도 특수학급 설치 인내에서 도배부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했다.

/오상근 기자